

안양천 살리기 현황과 과제

안명균(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1. 개괄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안양천살리기 사업은 전국 최악의 오염 하천 (90년대 초반 까지 BOD기준 198ppm)이었던 안양천이 시민의 희망으로 되살아나는 과정이었다.

그 사업의 핵심에는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처리장 설치, 안양천의 상류구간인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구간의 자연형하천 복원 진행, 안양시 수암천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개구간 복원사업, 안양천 중 국가하천구간(안양대교-하류 전구간)의 자연형하천 복원 사업 시작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안양천의 수질은 상류구간인 학의천 등은 2급수 정도의 수질을 달성하였고, 하류구간에서도 6ppm 조금 넘는 오염도로 3급수 수질을 달성하였다.

이에 따라 안양천에는 참게와 송어가 돌아오고, 상류 구간인 학의천에서는 아이들이 물놀이 하며, 수많은 철새가 날아드는 하천으로 변화하였다. 안양시민의 의식도 변화하여 2000년 당시 환경문제로 가장 접근하기 싫은 곳 1위 였던 안양천이 2009년 설문조사에서는 환경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곳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하천복원의 모범 (하천복원과정에서 하천생태계를 최대한 배려하여 하천의 한 측면은 자연에게 한 측면은 자전거도로 등 인간의 친수공간으로 복원 진행) 으로 안양천의 지류인 학의천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2009년 SBS 물환경대상에서 안양시와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는 대상을 공동수상하는 등 수 많은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안양천은 전국적으로 하천복원의 모범사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하천 살리기가 유역 전체의 관점에서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안양천 살리기는 이제 시작단계로 볼 수 있다. 안양천은 유역에 13개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과천시 등 7개, 서울시의 구로구, 양천구 등 6개 지방자치단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안양천 유역에 포함되어 있다.)

2. 현재 계획 중, 진행 중인 안양천 살리기 사업 현황과 문제점

1) 안양천 하류 국가하천구간 하천복원 사업-계획 수립

국가하천구간의 관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 수립(환경영향평가 진행)

2012년까지 사업 완료 계획

안양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구간을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는 주요한 계획으로 시급한 사업 진행 필요 하지만

(현재 예산 확보가 어려움-4대강사업으로 예산 집중)

(오세운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 계획이라는 상이한 계획이 제출되어 혼선 발생)

(한강르네상스 계획에서는 안양천 중하류까지 뱃길 제안, 안양천 중하류는 서울시가 지정한 조수보호구역-이곳에 대형 선박 이동시 문제 발생)

제안 : 경제성, 현실성없는 개발계획이 아니라 생태계가 살아있는(은어가 돌아오는) 안양천을 만들자.

2) 안양천 상류지역 복개하천 복원 계획

안양천 상류지역인 의왕시 오전천 일부, 군포시 산본천, 안양시 수암천 등의 복개구간 복원이 요구되고 있음

현재 안양시 수암천 복개구간은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사업 진행 중
의왕시 오전천 경기도 복개하천 복원 계획에 포함 (진행시기는 미 확정)

군포시 산본천 군포시 도시기본계획에 복원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없음

제안 : 안양천 살리기 10년의 성과를 이어 안양천 경기도 구간의 복개하천을 신속히 복원하여 안양천 살리기를 완결한다. (복개하천 구간 특히 산본천은 수질측면에서도 안양천에 나쁜 영향을 줌 - 2009년에는 20-30 ppm)

3) 안양천하천센터 계획 진행 중

안양시 석수동에 안양천하천센터 건립 사업이 진행 중 (건물 설계는 확정되어 공사 예정, 내부 시설물과 전시 계획 수립 중)

안양천 살리기 사업의 중심으로 안양천 유역 전체의 교육과 시민참여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예정 (건물 공사 예산-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내부 전시 및 운영예산-안양시 분담)

현재 되살아난 안양천은 인근 학교와 청소년, 시민의 중요한 환경, 생태 교육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이번에 건립 중인 안양천하천센터가 그 중심으로 허브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길이 32km의 긴 길이와 많은 지천, 유역에 1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안양천의 특성을 고려하면 각 지천과 지역별로 작은 규모의 하천센터(교육센터 또는 하천이야기관 등)가 필요함

제안 : 안양천이 각 지역의 청소년 환경, 생태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곳곳에 작은 규모의 하천센터(하천환경교육센터, 하천이야기관 등)를 만들어 시민이 참가하는 안양천살리기, 미래 시민인 청소년이 사랑하는 안양천을 만든다.)

(각급학교에 영어교육등 학습위주 활동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안양천 환경교육등을 지원한다.)

4) 안양천 살리기 10년 , 이후 10년 새로운 미래 구상 필요

안양시를 중심으로 진행된 안양천살리기 10년 사업은 현재 안양천 중상류구간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 안양천 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계획과 사업 집행이 필요

(경기도와 서울시를 흐르는 안양천의 특성 상 안양천유역협의체가 구성되어 안양천 살리기의 구체적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는 유역내 지자체, 시민사회의 협력과 공동 노력이 필

요 함)

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 목표 - 은어가 돌아오는 안양천

(은어는 바다와 강으로 회유하는 어종, 2급수 이상의 수질에서 살아가는 은어는 안양천 수질의 개선을 통해 아이들의 물놀이가 가능한 안양천을 상징, 바다와 소통하는 생태통로로서의 안양천을 상징, 안양천살리기의 완결을 상징)

은어가 돌아오고 안양천 전 구간에서 아이들의 물놀이가 가능하려면 안양시 석수도, 박달동의 하수처리장 처리수의 고도처리 등을 통한 수질개선이 필요함, 현재 이론적으로는 안양천 하류구간은 100% 하수차집으로 비점오염원 이외의 오염물질 유입이 없음, 현재 안양천 중류에 있는 일 47만톤 처리 규모의 안양하수처리장의 처리수 수질이 안양천 본류 수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줌.

(수질 관리는 환경부, 하천관리는 국토해양부 체계가 갖는 문제로 하천관리의 일원화가 필요, 유역협의체 필요성, 혜택을 받게되는 서울시와 하수처리장이 위치한 경기도의 협력을 통해 방류수의 후처리시설 설치 등이 필요함)

제안) 안양시와 군포시 등도 도시 재생사업(재개발, 소위 뉴타운 사업) 과정에서 안양천을 도시의 중심 생태축, 녹지축, 시민 생활공간으로 변모시키는 큰 도시계획상의 비전 수립이 필요

시민이 참여하는 안양천 유역협의체 구성 등

5) 안양천살리기의 비전과 한강주운계획(경인운하계획), 한강르네상스

한강의 옛모습을 훼손한 신곡보(경기도에 위치)와 잠실보를 제거하면 한강의 수질도 개선하고 은어가 돌아오고 넓은 모래사장에서 강수욕을 즐기는 한강 복원이 가능함

4대강 사업은 80년대 군사정권의 전시성 한강종합개발계획(유람선계획)과 비슷한 사업, 은어가 돌아오고 물놀이하는 안양천과 한강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한강하구의 신곡보 철거가 핵심

제안) 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 위험 4대강 사업 중단하고 안양천을 비롯한 지천 살리기에 먼저 투자한다.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안양천살리기 예산이 뒤로 밀리고 있는 실정)

하얀 모래밭과 여울에서 은어와 함께 뛰노는 아이들이 있는 안양천을 되살린다.

상세한 내용들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